2023년 9월 제 45호

# 울림과 잠김

##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인: 오승수 시몬 주임신부 | 편집: 소공동체지 편집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 경축 이동 **(2023년 9월 17일)**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9,24)

103위 순교 성인 | 문학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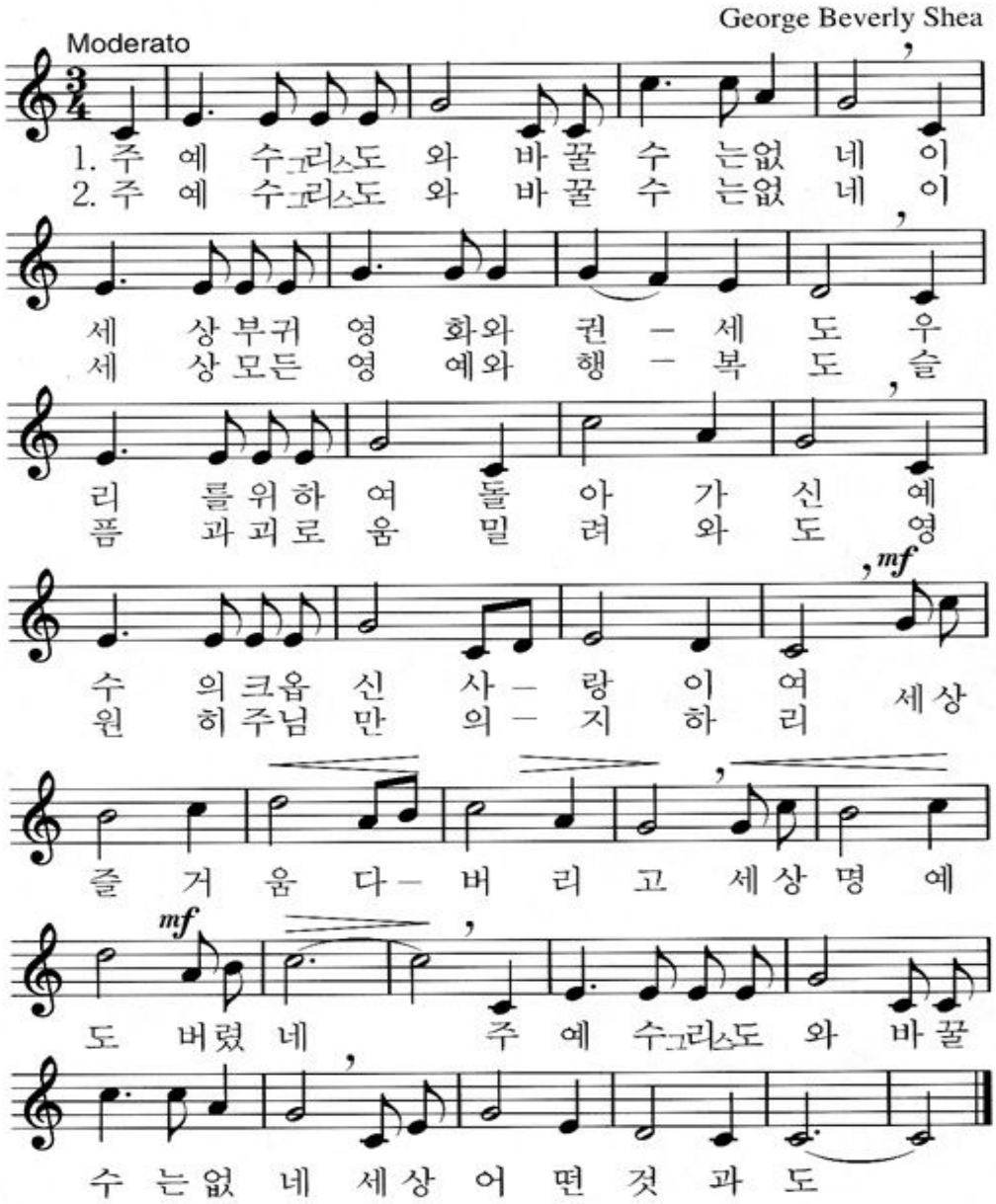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 23)**

##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연중

###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61




##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 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4.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로마 10,8)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주교회의 성경위원회)

##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의인들의 운명** **(지혜 3.1-9)**

1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2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3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4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5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6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7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8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9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루카 9. 23-26)**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단어 하나 / 최대 문장 하나)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 6.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 동네방네 메아리

- 반원 모든 분들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고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BL1)
-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 여인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라는 말씀으로 반원 분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BL1)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라는 말씀처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NV1)
-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며 매 순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NV1)
- 하느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천하는 삶이 “경외하는 이들”의 삶임을 알고, 그러한 삶에 주님의 자비가 대대로 미치리라 믿습니다. (NV1)
-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NV1)
- 8월 Rochester 구역 모임을 Stony Creek Park에서 개최하여 야외에서 통합 반 모임을 하며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RC)
-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라는 말씀으로 기도드렸습니다. (TR2)

## 7.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 8.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9.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 10.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였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가정을 위한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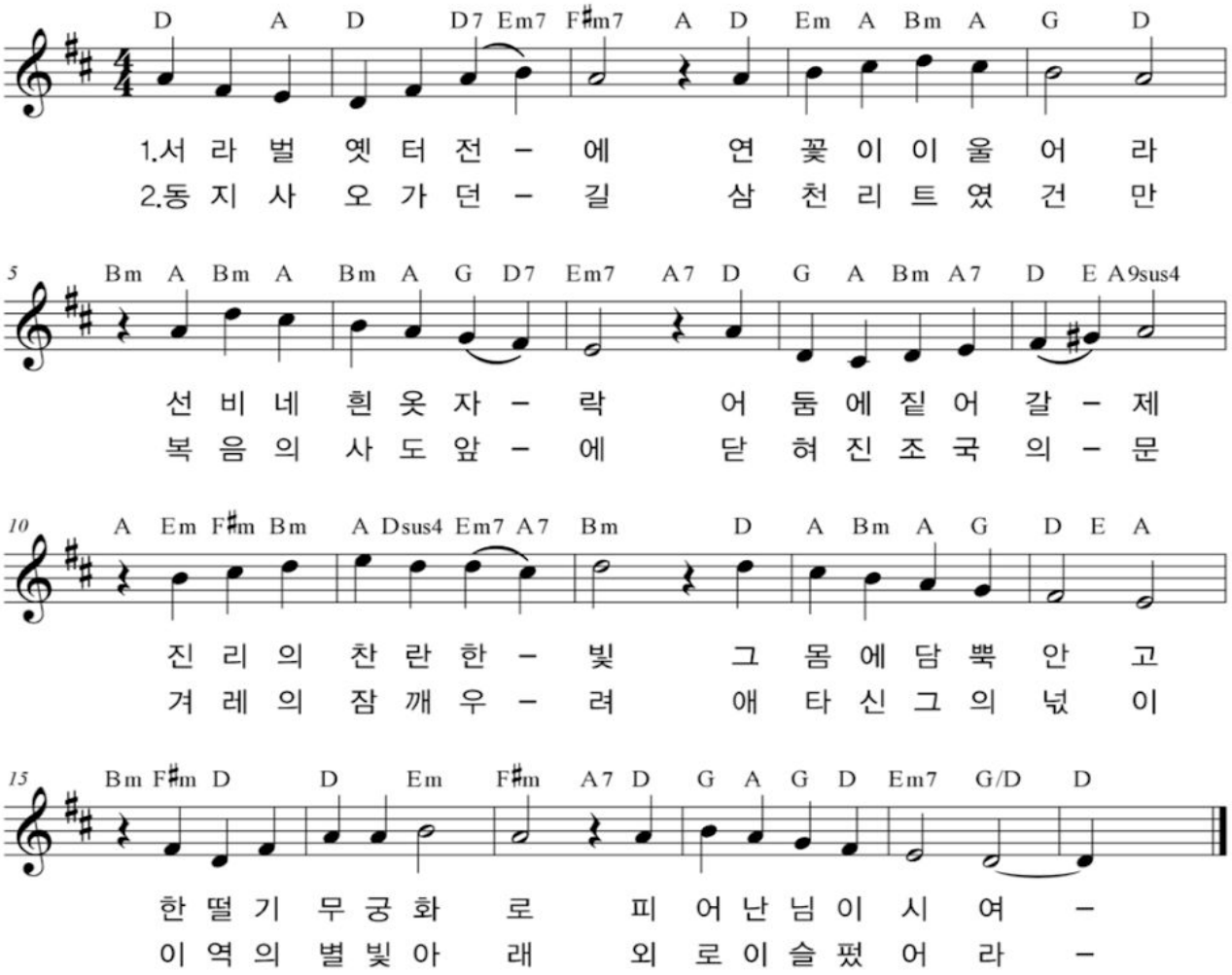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아멘.**

## 11.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생활성가 셀라책 216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216

최민순 글 / 이문근 곡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본당 성서 공부 질문과 응답

주임신부님께서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중에 해주시는 성서 공부를 본당 홈페이지에서 녹음 파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궁금한 점은 반장님이나 질문 링크 (QR Code)를 통해서 오승수 시몬 신부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순교자 성월, 신앙의 역사와 믿음의 뿌리를 기억해보며

정진 그라시아

**한국의 천주교회**는 3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 없이 신앙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과 문화에서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회는 실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느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사상의 한계를 겪고 있던 조선은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상의 한계는 정치와 학문에만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 전반에 걸쳐서 문제를 야기하였고, 그 결과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실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조선의 성리학 사상을 극복하고 백성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상을 연구하던 중에 천주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문을 연구하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된 결과, 한국 천주교회는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었다는 두 번째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사”와 “사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중국 교회를 통해서 교황청에 서한을 보내어 사제를 파견해 줄것을 요청하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성인들은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택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56명은 남성이며 여성은 47명입니다. 고작 13세의 나이에 순교를 택한 유대철 베드로 성인부터 78세를 일기로 순교한 유체칠리아 성인까지 모두 ‘믿음’이라는 위대한 신앙으로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신분과 직업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 양반 출신부터 중인, 상인, 승지, 선공감과 광흥창의 관리, 군인, 궁녀 뿐만이 아니라 짚신 장사, 길쌈과 삯바느질 등으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던 이들도 순교자였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10명을 제외한 순교 성인 93명 가운데 성직자는 김대건 신부가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평신도입니다. 이는 평신도의 믿음이 얼마나 넓고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교회 활동과 순교는 한국 교회의 평신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윤리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임금과 아버지에 대한 충과 효를 최고의 윤리로 강조하는 사회에서 성인들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상선벌악하시는 천주를 결코 배반할 수 없다.”는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성인들은 가족,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도 천주교 교리에 따라 순교를 택한 것입니다. 성인들이 혈육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혈육 사이에서 서로의 순교를 격려하는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여러 순교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박해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791년 조상 제사가 문제로 발생한 신해박해부터 시작된 박해는 1886년 한불조약으로 조정에 의한 공식적인 박해가 끝날때 까지 약 100여 년간 크고 작은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 규모와 의미 면에서 큰 신유박해(1801), 기해박해(1839), 병오박해(1846), 병인박해(1866)를 4대 박해라고 부릅니다.

조선에서 발생한 첫 번째 박해였던 신해박해는 조상 제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있었던 박해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지배층에게 성리학이라는 지배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던 천주교인들은 체제에 대한 반역자들이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불어 조선 후기 불안한 정치 상황은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4번의 대대적인 박해와 크고 작은 여러 박해를 거치면서도 신자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신자들이 늘어난 이유를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에 해당하는 백정이었던 복자 황일광 시몬이 재판장에서 했던 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백번 죽는다 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백정으로 태어나 개, 돼지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던 내가 천주교 교우가 된 후,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람대접을 받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난 천주를 알기 전에는 백정의 아들로 기르신 부모님은 물론 나 자신마저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학죄인, 천주학쟁이로 죽어가는 이 순간 나는 누구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백정으로 태어났다가 천자, 하느님의 아들로 죽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한국 천주교회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문연구의 과정에서 자발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시작한 한국 천주교회는 박해를 거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신앙의 선조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저희도 "나는 천주교인이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시대는 더 이상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엄밀한 의미의 순교인 '피의 순교(적색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순교 정신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사상을 찾았던 모습, 교회의 재건을 위해 알지 못하는 세상인 교황청에 서한을 보내면서 역동적으로 사제를 청하며 간절히 미사성제를 원했던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하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20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고자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전해 들었고, 이제 전해야 할 신앙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한국 순교 성인들에게 전구를 청해보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선조들의 피의 순교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것들을 이웃에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백색 순교의 삶을 꽃 피우게 해줄 것입니다.

[참고문헌]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천주교 순교 성지를 찾아서 (문갑순),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방상근), 소금 항아리 (생활 성서, 2022년 9월),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주보 (2022년 9월 20일)